

차례

제4편 이만제단 시대 제1부

- 광야의 외치는 소리
 -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 전도관의 시작

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 하나님의 뜻대는 전도관으로 옮겨졌다
- 구원은 전도관에만 있다

2) 전도관의 시작

500 년전 남사교 선생은 삼팔목은시황출(三八木運始皇出 - 격암유록 ‘통궁가’) “삼팔목은 박태선 장로님은 인류를 살리시는 첫번째 영적(靈的) 황제로 출현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언해 놓았다. 뿐만아니라 세상부지함심사(世上不知厥心事) “세상이 몰라서 박태하니 한심한 일이다”라고 예언해 놓았다. 독자들은 이미 느꼈을 것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평범한 일개 부흥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 박태선 장로님은 하늘의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으로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독교 인들을 상대로 더욱이 목회자들을 극진히 위해주면서 뜻을 이루려고 애쓰신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믿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세주를 찾아 키워 세우시려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교권주의자들의 밥그릇 사수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 박태선님은 할 수 없이 기독교 즉 기성교회는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 1956년 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철공장(자택 옆)을 개조하여 집회장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전도관(傳道館)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만들어 붙였다. 이렇게 하여 전도관이라는 이름이 하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격암 남사교 선생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450년 전에 예견하고 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철공장 전도관에서 가진 첫 집회에 모인 사람 수는 80명이었다.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는 역시 엄청난 은혜와 진동하는 향취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열광케 하여 무야지경에 빠뜨렸다. 불치의 병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다.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내렸는

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날 새벽 예배 시간에 용산일대의 소방차 수십 대가 싸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 대면서 몰려왔다. 철공장 전도관에서 엄청난 불길의 솟아올라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형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몰려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화재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프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철공장 전도관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체험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입소문을 거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그러자 삼시간에 박태선님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도나도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여 철공장 전도관은 사람의 흥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곳 일대는 교통이 혼잡해서 많은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에 정신을 쫓길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아연한 사실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불치병자들이 그 부근 대로변에 들것에 실린 채 자리를 잡고 누워 있어서 도무지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이다. 그곳은 완전히 24시간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또 이런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관을 세워 놓고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 가기위해 철공장 전도관에 와서 허락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고 몰려앉아 있는 것이다. 교권주의자들이 제명한다는 위협에 주춤하던 해보관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제명할테면 해보관듯이 정들었던 교회를 버리고 전도관으로 전도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룻밤 차고 나면 전국 여기저기서 전도관이 세워졌고, 또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 가려는 사람들로 원효로 박태선 장로님택은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박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인들의 요청에 전국을 순회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 중반에 서울 원효로에 웅장한 2만제단을 지었다. 이후 전국에 전도관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날 새벽 예배 시간에 용산일대의 소방차 수십 대가 싸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 대면서 몰려왔다. 철공장 전도관에서 엄청난 불길의 솟아올라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형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몰려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화재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프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철공장 전도관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체험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입소문을 거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그러자 삼시간에 박태선님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도나도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여 철공장 전도관은 사람의 흥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곳 일대는 교통이 혼잡해서 많은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에 정신을 쫓길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아연한 사실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불치병자들이 그 부근 대로변에 들것에 실린 채 자리를 잡고 누워 있어서 도무지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이다. 그곳은 완전히 24시간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또 이런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관을 세워 놓고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 가기위해 철공장 전도관에 와서 허락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고 몰려앉아 있는 것이다. 교권주의자들이 제명한다는 위협에 주춤하던 해보관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제명할테면 해보관듯이 정들었던 교회를 버리고 전도관으로 전도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룻밤 차고 나면 전국 여기저기서 전도관이 세워졌고, 또 박태선 장로님을 모셔 가려는 사람들로 원효로 박태선 장로님택은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박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인들의 요청에 전국을 순회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 중반에 서울 원효로에 웅장한 2만제단을 지었다. 이후 전국에 전도관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二.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1) 하나님의 뜻대는 전도관으로 옮겨졌다

처음 기성교회를 통하여 뜻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전도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시작한 후부터 박태선 장로님은 기성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명철날 딱치듯 말씀하셨다. 기성교회는 하나님의 뜻대가 옮겨졌으니 구원이 없다고 강론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고로 어데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일을 행하라. 네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묵2:5) 고 한 말을 인용하며 기성교회에서의 구원은 이미 떠났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기성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겼다”라고 강하게 증거 하셨다. 기성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꺼졌으니 전 세계에서 전도관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2) 구원은 전도관에만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가 기성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전도관 외에는 전 세계에서 어디도 구원이 없다고 선포한 박태선님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는 확증을 주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첫째, 물세례와 성령세례

전 세계의 기독교나 천주교가 하나같이 물로 세례를 주고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하면서 물을 짙어 머리에 뿌려준다. 그것으로 세례교인 즉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뽐내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는 구원의 특권이나 준 것같이

목에 힘을 준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런 기성교회의 행태를 사정을 두지 않고 처버린 것이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구원의 증표나 준 것처럼 하여 교인들을 미혹시켜 다 지옥 보내고 있으니 이런 목사와 교권주의자들은 최고의 지옥자식들의 후보자들이라고 쳤다. 누가 됐건 즉 목사가 됐건 평교인이 됐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증생(요 3:5)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고 구원이 없다고 강하게 증거하시는 것이었다.

성령은 특수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고 일반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간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호되게 아단친 것이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로 회개하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마3:11)라는 세례요한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강하게 증거 하였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성경구절을 읽어 주면서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사정없이 비판하셨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뒹고을로 다녀서 예베소에 와서 두어 제자를 만나 물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신을 받았느냐 가라대 아니라 우리는 성신 주심을 듣지도 못하였나니라 하거늘 바울이 가라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하니 바울이 그 위에 손을 안찰하매 성신이 그 위에 임하시(행19:1-6)”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고전13:10)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물세례는 온전치 못한 것이니 온전한 성령세례를 받을 때라고 강하게 강조하셨다.

또 전 기성교회와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세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기독교 교권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양떼들을 속여 양떼들이 전 기독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책임은 다 양을 먹인다는 목자들에게 있다고 하였다.

사실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에 오면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향취를 맡게 되니 전도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다들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바울이 그위에 손으로 안찰하매 성령이 그위에 임하여”(행19:6) 한 성경대로 박태선 장로님을 통하여 안찰을 받으면 즉시 성령이 받아지니 박태선 장로님의 말을 100%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두번째: 생수(生水) 축복

박태선 장로님은 수도물을 손으로 축복한 후 이를 ‘생수’(生水)라고 이름을 붙인 후 교인들에게 가져다 마시게 하였다. 그 물 즉 생수를 마시니 불치의 병들이 그냥 낫는 것이었다. 또 얼굴에 바르니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고 어느 날 박태선 장로님은 전도관 6개월 이상 나오다 죽은 시체에 이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산 사람처럼 아름답게 시체가 피어난다고 했다.

과연 죽은 67세된 권사님에게 바르니 얼굴에 주름살이 퍼지고 입술과 볼이 화장을 예쁘게 한 것 같이 썩었다는 연지를 바른 것 같이 불그스레 되고 뼈마디는 산 사람처럼 노글노글하게 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시체에서는 향취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것이 천당의 모습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생수 발라 피어 가는 시체를 본 전도관 사람들은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박장로님의 말씀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박장로님의 역사를 기성교회에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못하였다. 그것은 박장로님의 역사는 성경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회안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이나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더라”(사도행전19:11) 영모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을 발한 것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묻어 나갔기 때문이

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박 장로가 물에다 손으로 축복을 하면 수도물이 성령이 충만한 생명물인 생수가 된다고 외치시니 기성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어기가 되고만 것이었다.

처음에는 박 장로의 발 씻은 물 손 씻은 물을 전도관 교인들에게 먹인다고 약선전하던 기성교회가 성경적으로 반격을 가하니 잠잠해져 방어기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전도관 교인들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행주수건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간 것과 같이 약술과 손수건 등을 박장로님에게서 축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축복 받은 솜과 수건 등으로 전도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활용하여 큰 성과를 얻곤 하였다.

기독교의 진수(眞髓), 십자가(十字架, 卍 復(眞血), 부활(復活)

박태선 장로님은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 보혈, 부활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토해 내니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못했을 것이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못했다면 우리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도 못하고 다 지옥 가이만 했을 것이다”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영 우시니 수많은 교인들은 따라서 통곡바다를 이루었던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감동적이고 멋진 명 설교를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목사들도 한번 와서 들어 보고는 박장로의 저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이단이 아닌데 하면서 의아한 마음을 나타내곤 했다. [박태선 장로님이 구세주를 배출한 뒤에는 이제껏 외친 예수의 구세주라는 점을 뒤엎으며 예수는 가짜 구세주이고 대마귀 새끼라고 폭탄선언을 하였다.

이처럼 박장로님이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속이는 기만전술을 구사하여 예수를 등에 업고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소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설교를 하시는 박태선 장로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려면 누구나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100% 믿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덕경 29장 해설



흔히 하는 말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세상 말이 있다. 이러한 인생의 숙명관은 유한한 생의 목적을 가진 무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도인의 세계관과 인식론은 다르다. 인간이 순수본성 의식과 완전히 합일되면 영생불사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고는 하나 비록 무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시작과 끝의 본질을 어느 정도 빨리 깨닫는 나가 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철학자들은 논한다. 생의 통찰이 없는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방식이 허망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원하는 것을 손아귀에 다 넣을 듯

끊음과 열정을 불태우며 앞뒤 안 가리면서 몸과 마음을 혹사한다. 대개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상처 내고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없이 행한다. 인간의 오욕질정에 따라 갖은 죄악을 지으면서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어느덧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서 서산에 걸린 해를 아쉬워하듯 늙음과 죽음의 문턱에서 지난 세월을 한탄한다.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부를 쌓고 최고의 지위를 누리다하들

天下神器 不可爲也

천하신기

불가위야

천하는 神이 만든 그릇과 같아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만고 불변의 진리와 같은 이 말을 상기해 볼 일이다.

마음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과 대상을 통한 만족과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환락 상에서 얻어지는 쾌감으로 그친다. 그러나 진정 순수 본성으로부터 느끼는 가슴 뭉클한 희생, 은유한 기쁨, 포근한 사랑, 가슴 벅찬 감동 같은 내면의식의 고양으로부터 오는 희열은 상쾌하며 영원한 생명의 확장을 가져다준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의 정도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류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무서운 변화의 삶

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물질만능주의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지구의 생태환경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오늘날 인간 사회와 지구촌의 실상이다. 이러한 인간적 비극과 지구적 천재지변은 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과 비뚤어진 향락 추구에서 비롯된 인과응보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루빨리 인간의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 된 본성(양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만 옹고고 설친 모든 인생사의 고통과 불행의 실타래를 시원스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 장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간이 되는 수신, 수신하기에 더 없이 좋은 귀감의 글이 될 것이다.

將欲取天下而爲之(장욕취천하이위지):대저 천하를 취하고자 억지로도 모한다면

사람이 억지로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 사심에 의한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吾見其不得已(오견기

부득이): 나의 견해로는그것은 반드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도를 닦는 사람의 견해로는 이러한 것은 반드시 획득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획득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유한한하고 허망 것에 불과하다.

天下神器 不可爲也(천하신기 불가위야): 천하는 神이 만든 그릇과 같아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천하는 인간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신으로 되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爲者敗之 執者失之(위자패지 집자실지): 억지로 행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으려고 행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자는 실패하게 되고, 그렇다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순수본성(양심)이 회복될 때나 통

하는 것이다.

故物或行或隨(고물혹행혹수): 고로 만물은 혹여 앞서기도 하고, 뒤에 따르기도 하며

그러므로 만물은 그 생각과 용도에 따라 알맞게 작용하는 것이다.

或歎或吹 或強或羸 或挫或隳(혹하혹취 혹강혹취 혹좌혹휴): 혹여 미약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며, 혹여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며,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물의 생각과 성질에 따라 알맞게 쓰임 바 되는 것이다.

是以聖人去甚 去奢 去泰(시이성인거심 거사 거태):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함도 버리며, 교만함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도인)은 뭐든 순수본성에 따른 삶을 지향하지, 외부(대상)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이익, 편의, 교만, 허영, 사치 등에 의지하지 않는다. 항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원만한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우 422-826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